

서해안시대의 중심, “해양 웰빙시티” 태안군

조봉운 / 도시지역연구부 책임연구원

태안의 첫느낌



과거, 태안군을 알게 된 것은 충남의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갖추기 위해서 충남의 행정 지도를 컴퓨터를 이용해 그리기 시작했을 때부터이다.

충남의 북서부 제일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꼬불꼬불한 해안선이 길어 유난히도 그리기가 힘든 지역이었다. 후에 안 것이지만, 그 긴 해안선을 따라 줄지어 해수욕장이 펼쳐져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

이만큼 ‘태안’하면 누구나 서해안의 가장 긴 해안선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며, 여름철이면 사람들이 붐비는 해수욕장을 연상하게 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생각에는 찾아가기 힘든 곳, 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에 또 한번 놀랐던 기억이 있다.

지금은 태안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 있다. 2002년 국제꽃 박람회 개최이후 태안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졌으며, 찾아오는 관광객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떠올리는 이미지도 바다, 해수욕장에서 꽃, 소나무(해송) 등 자연에 대한 이미지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한복의 그림같이 인식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태안군이 가장 깨끗하고 살고 싶은 지역이 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태안군의 심벌마크 마스코드 표상 등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심벌마크는 태안의 아름다운 낙조와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붉은색타원 태안의 청정관광지를 상징하는 녹색 타원 장대한 리아스식 해안을 상징하는 청색의 라인은 태안의 한글 첫 자인 ‘ㅌ’과 ‘ㅇ’을 모티브로 하여 태안군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마스코트인 ‘태돌이’는 태안지역의 대표적 특산물인 꽃게를 형상화하였는데, 태는 태평성대(太平聖代), 국태민안(國泰民安)으로 복된 태안을, 돌이는 도리로 목표와 방향 바른 길을 의미한다.

태안의 일반현황

태안군의 연혁을 살펴보면, 백제시대에 성대해현이라 칭하였고, 신라 경덕왕조에 소태라 개칭하여 현이 되었다가 충렬왕조에 태안으로 개칭되었다. 그후 지방제도 개정시 조선 고종 32년에 태안군으로 정하고 군수를 두었다.

1914년 태안군과 서산군이 통합되었다가 1989년 서산군으로부터 복군되어 2읍 6면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태안군은 인구 6만4647명(2003)의 면적이 503.57㎢인 충청남도 북서단에 위치한 군으로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태안반도이며, 광주산맥이 침강하였다가 다시 융기하여 생긴 백화산·지령산이 있고, 팔봉산을 경계로 서산시와 접하고 있다.

해안선은 리아스식해안으로 그 길이만도 531km나 되고, 그 형태도 복잡하여 가로림만에서 시작하여 이북반도, 남반도 그리고 천수만으로 이어지고 있다. 태안은 동쪽만 서산과 연결되어 있을 뿐 3면이 모두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로서 해안주변에 크고 작은 섬들이 118개에 이르고 있다.

태안의 진산(鎭山)인 백화산은 태안읍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지맥(支脈)이 사방으로 뻗어내려 마치 낙지발처럼 분포되어 있다. 주요산으로는 백화산(白華山), 철마산(鐵馬山), 이화산(梨花山), 도기산(倒旗山), 가재산(鰲大山), 군관산(軍官山), 건지미산(乾芝味山), 후망봉(候望峰), 묵송산(墨松山), 봉황산(鳳凰山) 등이 있다. 이로 인하여 평야는 적은 편이나 간척지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

풍수로 본 태안군은 금닭이 알 품은 모양(金鷄抱卵形), 닭 둥지 모양(鷄巢形), 우는 닭 모양(鷄鳴形), 닭뿔 모양 등의 형국이다.

태안에는 지형상 남북으로 긴형태로 강(江)이 없다. 단 몇 개의 하천(河川)이 있는데, 남창포천(南倉浦川), 여우내(如意川), 무우내(無雨川), 용요천(龍腰川), 풍천(楓川) 등이 있다.

기후는 바다와 접하고 있어 해양성 기후이지만, 겨울에는 북서계절풍의 영향을 받아 동해안보다 오히려 춥다.

연평균기온은 11.8℃, 가장 추울 때인 1월의 평균기온은 -2.7℃, 가장 더울 때인 8월 평균기온은 25.6℃를 나타내며, 연평균강수량은 50%가량이 7~9월에 집중되어 내린다.

교통여건을 보면, 서산에서 태안으로 이어지는 국도32호선만이 유일한 접근로로서 가장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인식되었는데, 천수만에 서산 A·B지구가 간척되면서, 이를 따라 태안군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국지도 96호가 건설되어 보다 원활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태안군은 지리적인 여건 및 계절적인 특성으로 다양한 식물군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 중 천연기념물(제138호)로 지정되어 있는 모감주나무 군락지를 비롯한 굴거리나무, 서울제비꽃, 새우난초, 동백나무군락, 사철나무, 줄사철나무, 굴거리나무, 순기비나무 등은 특이할 만한 것이며, 특히, 태안읍을 중심으로 북부지역에서 소나무림과 잣나무인공림, 안면읍지역에 소나무림이 분포하고 있다.

태안에는 무역항 1곳(태안항), 국가어항 2곳(안흥항, 모항항), 지방어항 12곳(백사장, 몽대포 등), 어촌정주항 7곳(만대 등)의 어항이 있다.

태안~천안간 동서산업철도 건설을 통한 서해안권 물류 유통망 형성을 통한 서해안권과 내륙권과의 연계성이 향상될 것이다.

그러나,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지나가지 않은 충남의 유일한 지역으로서 접근이 다소 불편한 것은 사실인데, 서해안고속도로의 해미·홍성IC에서 30km 이내로 수도권과 2시간대 접근성을 갖고 있으며,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안면~보령간 연육교가 건설되면, 내륙과도 광역적인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접근성의 불편함으로 인해 현재의 깨끗한 자연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접근로가 태안읍을 통과하여 각 읍·면으로 진입하게 교통망이 구축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태안읍이 태안군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삼지창과 같이 북부, 서부, 남부로 향하는 도로망이 형성되어 통합·분산의 결절지로서 성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산 A·B지구로 진입하는 도로가 잘 형성되어 안면도로의 접근은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 생활권이 양분되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

산업적 측면을 보면, 경지면적이 약 1만7천ha로 전체

면적의 34.2%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논이 63%, 밭이 37%를 차지하고 있는데, 논외 저산성 구릉지의 산간곡지에, 밭은 완경사면에 발달하였다.

임야는 전체면적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밤·버섯·호두·잣·대추·도토리·은행 등의 각종 임산물들이 생산된다. 이 가운데 약초·산수유 등의 약용식물도 생산된다.

지역특산물로는 옥죽마늘·안면도고추·느타리버섯·까나리약젓·돌김·혜옥 등이 있다.

2003년 현재 62개의 광구(鑛區)가 있는데, 비금속광으로 규사석이 산출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화훼단지 중에서 남면의 화훼단지가 규모와 재배농가수에서 가장 크고, 인접한 백합시험장과 연계되어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해마다 개최되는 안면도국제꽃박람회와 꽃축제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자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서해안 관광의 거점도시 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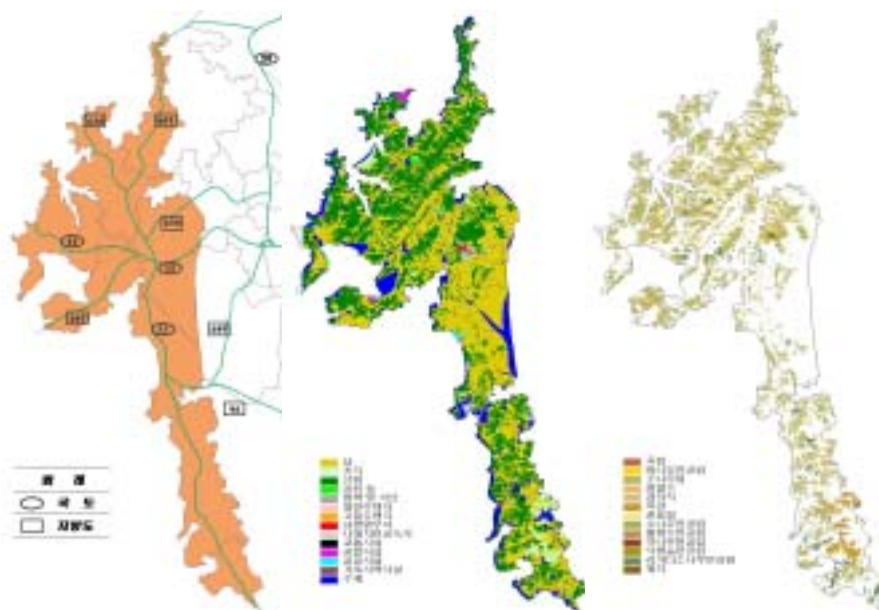
태안군의 서측 해안이 태안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만리포·연포·몽산포·방포·영목·꽃지·삼봉 등 30여 개의 해수욕장이 줄지어 있고, 해수욕장과 더불어 천리포수목원·안면도자연휴양림·안흥항·신진도·안흥성지·경이정·태안향교·백화산성 등이 주요한 관광자

원을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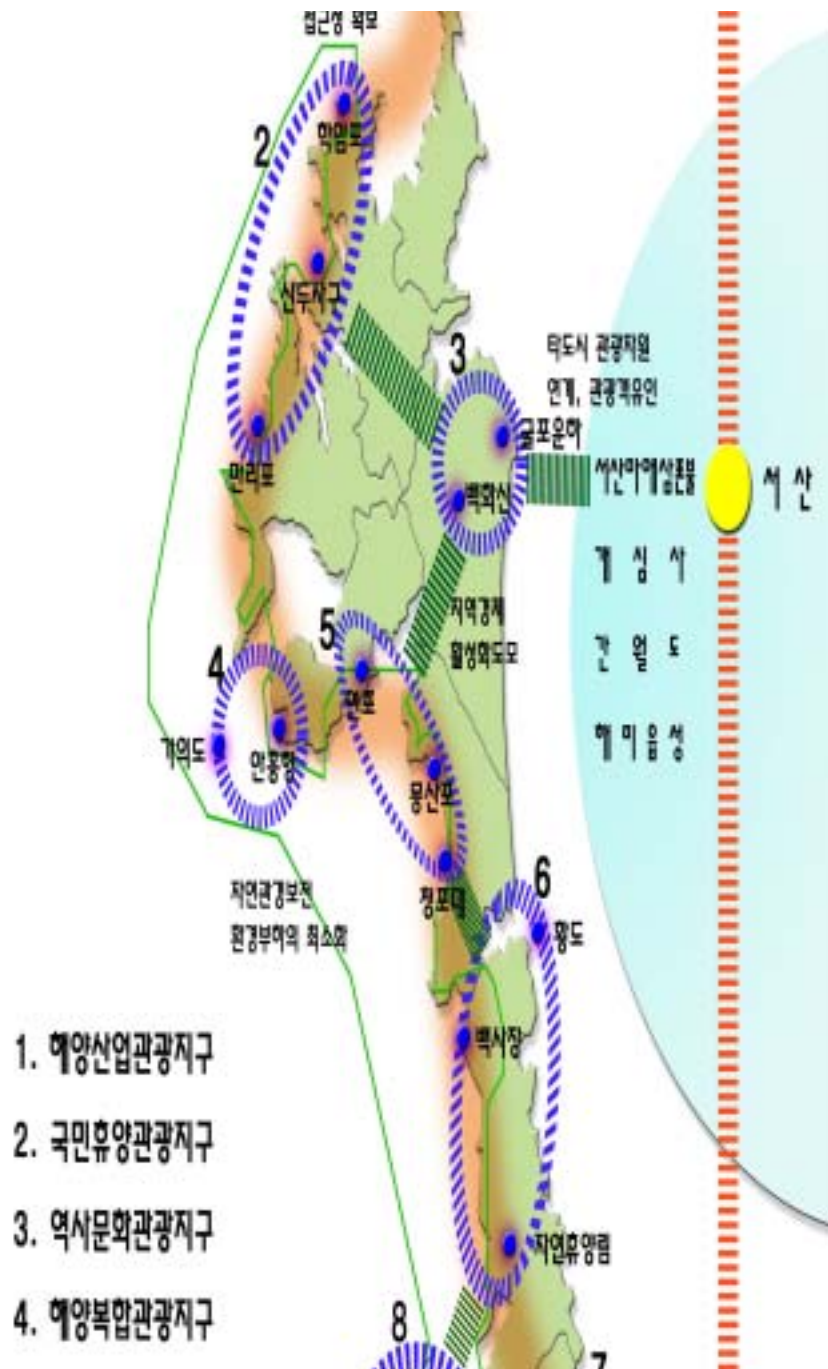
문화제는 2003년 현재 보물 1점, 천연기념물 3점의 국가지정문화재와 유형문화재 5점, 무형문화재 2점, 기념물 6점, 민속자료 1점, 문화재자료 4점의 도지정문화재가 있는데, 특히, 문화재로는 지정되지 않았지만 굴포운하 등 수운의 개발은 주목할 만하다.

조선시대에 조곡의 운반을 위해 천수만과 가로림만을 연결하는 운하건설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지역의 암반으로 인해 파나마운하와 같이 계단식 운하로 건설되어 활용되었으나, 이용상의 문제로 현재의 안면읍과 남면을 가르는 운하를 건설하게 되어, 결국 안면읍과 고남면이 섬으로 변하여 국내 6대 도서인 안면도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운하 건설을 볼 때, 우리나라의 저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 문화행사로는 태안군민의 날 축제, 황도봉기 풍어제, 안면도 예술축제, 수산물 축제 및 바다낚시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태안군 도로망 현황도 토지이용 인상분포도
출처 : 태안군, 태안군 관광개발 기본계획, 충남발전연구원, 2004.



1. 해양산업관광지구
2. 국민휴양관광지구
3. 역사문화관광지구
4. 해양복합관광지구

출처 : 태안군, 태안군 관광개발 기본계획, 충남발전연구원, 2004.

“해양 웰빙시티” 선포

2005년 5월 1일, 제5회 군민의 날 행사에서 태안 「해양 웰빙시티」 선포식이 있었다. 선포문에서는 첫째, 태안반도의 주인인 군민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기본권의 존중과 권익을 보호받으며,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둘째,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전통적 기본질서와 문화적 토양을 튼튼히 함으로써 여유로운 마음과 기풍을 확산하며, 셋째, 군민과 함께 태안군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정하고 친절함 사 را을 베풀어 편안하고 기분 좋은 감도를 제공하고, 넷째,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의 육성과 경쟁력을 높여 군민 누구나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나가며, 마지막으로 태안군이 천우녀과 천삼백리 해안절경이 어우러진 가장 편안한 고장으로서는 청정한 자연생태와 주변 환경을 온전히 보존하고 가꾸어 누구나 찾고 싶은, 살고 싶은 「태안해양웰빙시티」를 군민과 함께 건설해 갈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결의문에서는 첫째, 관광시설확충 및 관광문화 선지화에 전력투구, 둘째, 농특산물을 고품질화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추구, 셋째, 풍요로운 태안을 위하여 주민복지 시책을 적극 추진, 넷째, 맑은 물, 푸른 숲 등 친환경 시책을 적극 추진, 다섯째, 품격 높은 문화예술 전용시책을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꿈의 도시 태안”을 소망하였다.

이러한 지역의 외지 표명은 앞으로 태안이 희망하는 도시로 성장해 가는데,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보다 추진력있는 성장의 기제가 될 것이다.

3개 축과 허니포트형 거점도시의 육성이 필요

태안군민의 꿈인 서해안의 중심 태안으로 만들어 가려면, 현재 갖추고 있는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에 3개 축의 개발과 허니포트형 거점도시의 육성을 제안해 본다.

여기서 3개축이란 태안해안국립공원, 내륙의 양호한 산림자원 그리고 천수만과 가로림만의 갯벌 등 생태자원의 축을 말하며, 이들 연결하고 지원하는 거점도시로서 태안읍의 육성을 소개하고자 한다.

태안해안국립공원 축

서해안에 위치한 태안해안국립공원은 리아스식 해안을 따라 천혜의 해수욕장과 울창한 송림군락,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져 해안풍경이 절경이고 다양한 해양·해안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어 그 보전 가치가 대단히 높은 곳으로서, 1978년 10월 20일, 우리나라의 13번째 국

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년간 100만명이 넘는 탐방객이 여름철에 집중되어 성황을 이루고, 타계절에 방문하게 되면, 자연자원이 잘 보존·보호된 쾌적한 탐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태안해안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는 탐방코스를 개발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권역별로는 북부권(학암포, 만리포), 중부권(연포, 동산포), 남부권(안면도)으로 구분하여 탐방하고, 유람선을 이용한 해상탐방, 자연해설프로그램을 통한 생태탐방, 태안해안 지역의 문화축제를 통한 지역문화탐방을 마련하고 있다.

녹색산림 축

백화산을 비롯한 주요산과 천리포수목원 및 안면도휴양림으로 연결되는 녹색 축은 바다와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또 다른 볼거리와 체험공간이 될 수 있다. 특히 백화산의 경우, 다른 산과는 달리 암반이 노출되어 있는 산으로 보이는 그대로 백화산이라 불리우게 되었으며, 여기에는 기암괴석이 산재하고 있어 등산로를 따라 태안마애삼존불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천리포 수목원과 안면도휴양림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으로서 다양한 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해송으로 둘러싸인 휴양림을 건노라면 모든 걱정 근심을 다 떨쳐버리고 자연에 흠뻑 심취해 볼 수 있는 곳이다.

그 밖의 북측의 산림은 바다를 바라다 볼 수 있는 절경을 소유한 산으로서 산행의 좋은 코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수만과 가로림만 축

원수만과 가로림만은 서측의 해수욕장과는 또다른 이미지를 전달하는 곳으로서 어촌의 모습과 생태체험을 하기에는 매우 좋은 곳으로서 바다와 함께한 삶을 느낄 수 있는 곳이며, 바다생태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는 현재 많은 펜션이 자리잡고 있는 무질서한 개발보다는 지역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허니포트형 거점도시 태안읍 육성

이곳을 거쳐 타지역으로 출입하는 형태로 도로망이 형성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중심지로 성장한 태안읍을 타 읍·면이 관광 및 생활서비스외에 도시행정 및 지원서비스 등을 담당하면서 생활의 중심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행자부의 지원과 함께 소도읍육성 프로젝트를 추진중에 있다. 이 프로젝트는 10개년을 목표로 지역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그 결과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보다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삶이 보다 풍성해 질 것이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두서없이 태안이라는 지역을 현황과 희망 그리고 성장의 중심축을 소개하였다. 이 글을 쓰면서 처음 가졌던 태안에 대한 인상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또 그것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태안군의 77번 도로를 한 낮에 차로 달리면서 간혹 사람들과 차량의 소리가 들렸지만 무엇보다 나를 감동시킨 것은 한없이 깊어만 가는 고요의 시간이었다. 그것은 바로 편안함이라고나 할까 아무튼 나로 하여금 모든 시름을 잊고 쉴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해 주었다.